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2. 10.(수) 12:00
(지 면) 2025. 12. 11.(목) 조간

로봇이 공항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, 캐리어 배송해 드립니다

- 12월 10일(수) 행정안전부-인천시-인천 중구청-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협약 체결
-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등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 추진
- 빈 주차면까지 내비게이션 안내, 주차센터와 입·출국장 간 캐리어 로봇배송, 순찰 로봇(흡연단속 등)을 인천공항에서 실증하며 주소산업의 확장성 확인

< 인천국제공항 이동지능정보 사업 활용 사례 >

◆ ㄱ씨는 연휴에 6살, 3살 두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으나, 혼자서 아이들과 공항을 이용하는 것부터 걱정이었다. 그러던 중 인천국제공항의 **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서비스**들을 알게 되었다. 우선 '인천공항 주차내비' 앱을 이용하니, **경로상 최적 주차장의 빈 주차면까지 안내**되었고, 주차 후에는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전환되어, 수속 카운터까지 최단경로를 알려주었다. 짐이 많아서 걱정했으나, **캐리어 배송 로봇이 주차장 앞 교통센터에서 출국장까지 짐을 배송**해 주었다. 그 덕분에 ㄱ씨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편하게 출국장으로 향할 수 있었다.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12월 10일(수), 'AI·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*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'을 인천국제공항공사, 인천광역시,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하고 '캐리어 배송·순찰 로봇 서비스'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드론배송, 자율주행 로봇, 실내 내비게이션 등 첨단 서비스에 핵심 인프라를 보급하는 사업으로, 주소기반의 위치·이동 정보를 고도화한 주소정보를 활용

-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.
-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'인천공항 주차내비' 앱 서비스를 시범 제공 중이다.

-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, 차량 하차 후에는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를 연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.

□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‘주차내비 서비스’에 ‘캐리어 배송·순찰 로봇 서비스’도 추가로 시범 운영된다.

○ ‘캐리어 배송 로봇’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, 장애인,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한다.

-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할 수 있으며, 제1터미널 교통센터(지하1층 주차장 입구)와 입·출국장 입구(배달점)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○ 제1터미널 1층(입국장)과 3층(출국장) 버스탑승 대기장소에서는 순찰 로봇이 운영된다.

- 흡연 금지구역의 자율주행 순찰과 음성출력을 통해 쾌적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한편, 행정안전부는 매년 선도 지자체를 선정하여 드론 및 로봇과 주소 정보를 융복합한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○ 이를 통해, 쇼핑물·주차장 간 로봇 배송 서비스(‘24년, 전남 무안), 드론 기반 섬 지역 물품 배송 서비스(‘24년, 충남 보령)등 공공·생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융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·실증하고 있다.

○ 향후 각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해 전국 규모의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
□ 박연병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“AI 대전환 시대의 흐름에 따라, 주소는 단순한 위치정보가 아닌 국민과 산업을 효율적으로 이동·연결하는 기반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”라며,

○ “인천공항의 서비스 모델과 같이, 주소정보가 다양한 신산업과 연계되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균형발전국 주소정보혁신과	책임자	과 장	박희건 (044-205-3551)
		담당자	사무관	김문현 (044-205-3555)